

본 자료는 법무부에서 외주 사업을 통해 번역한 문서로,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인용이 불가합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처원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미얀마의 원주민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주민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미얀마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는 미얀마의 모든 시민이 '원주민'(တၢ်ယၢ်ဃၢ်, taing-yin-tha)라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유엔원주민권리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UNDRIP)」이 미얀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있다. 원주민 권리 활동가들은 국가 내 비지배적 지위, 역사적 지속성, 조상 전래의 영토, 자기 정체성 등 기준을 반영한 국제적 원칙에 근거하여, 미얀마어 용어인 တၢ်ယၢ်ဃၢ်(hta-nay-tain-yin-tha)를 사용해 원주민을 지칭한다.¹

「시민법(1982)」에 따르면, 영국이 미얀마 영토를 최초 합병한 1823년 이전부터 현재의 미얀마에 해당하는 지리적 영역에 거주해 온 민족 집단은 국가 민족(national races)인 တၢ်ယၢ်ဃၢ်(taing-yin-tha)²로 간주된다. 국가 민족으로 인정되는 민족 집단은 총 8개로, 카친족(Kachin), 카렌족(Karen), 카렌니족(Karen-ni), 친족(Chin), 몬족(Mon), 버마족(Burman), 아라칸족(Arakan), 산족(Shan)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의 분류 체계에서 소규모 집단들은 더 큰 민족 집단이나 하위 집단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 8개 집단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타인에 의해 원주민으로 여겨지거나 스스로를 원주민으로 정체화하는 나가(Naga)족과 같은 민족도 다수 존재한다.

「2008년 헌법」³에 따라 미얀마/버마(Myanmar/Burma)는 7개 주(state), 7개 지역(region), 1개 연방 자치령(union territory)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 주는 7개의 주요 민족 집단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카친주(Kachin State), 까야(카렌니)주(Kayah (Karenni) State), 까잉(카렌)주(Kayin (Karen) State), 친주(Chin State), 몬주(Mon State), 라카인주(Rakhine State), 산주(Shan State)가 있다. 버마족의 이름을 딴 주는 없지만, 이들은 저가잉(Sagaing), 머궤(Magway), 만달레이(Mandalay), 양곤(Yangon), 에야와디(Ayerywaddy), 떠닝다이(Thanyintharyi), 버고(Bago) 등 7개 지역과, 네피도(Nay Pyi Taw) 연방 자치령의 주류 민족이다. 또한 5개의 자치구와 1개의 자치지구가 존재하는데, 해당 구역들은 각 지역(관구)이나 주에 속해 있으며 해당 구역의 다수 민족인 나가(Naga), 더누(Danu), 빠오(Pa-O), 빨라웅(Palaung), 꼬깡(Kokang), 와(Wa)족의 이름을 따르고 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군(따마도, Tatmadaw)은 아웅 산 수치의 민주주의민족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을 축출하고 국가행정평의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 SAC)를 '사실상의' 정부로 수립하는 쿠데타를 시도했다. 이에 대응하여, 축출된 국회의원들은 2021년 4월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 NUG)를 구성했으며, 현재까지 망명 정부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전반적 분쟁 양상은 혁명군 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에는 국민통합정부(NUG) 산하의 신설된 시민방위군(PDF), 독립적인 지역 방위군, 그리고 수십 년간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위해 싸워온 기존의 소수민족 무장단체(EAOs) 등이 포함된다. 현재 미얀마는 통제권이 복잡하게 얽힌 혼전(patchwork) 양상을 띠고 있다. 국가행정평의회(SAC)의 통제력은 약화와 변동을 거듭하는 반면, 저항 세력들은 통치 체계를 공고히 하려 시도하고 있다.

미얀마는 2007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원주민권리선언(UNDRIP)」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에는 서명하지 않았으며, 국제노동기구(ILO) 제169호 협약도 비준하지 않았다. 미얀마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의 당사국이다. 미얀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비준하지 않았다.

국가행정평의회의 강제징집, 원주민 청년들의 위기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전국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전례 없는 영토 및 군사적 손실을 입은 국가행정평의회(SAC)는 이에 대한 절박한 대응책으로 보이는 조치를 발표했다. 2024년 2월 10일, 국가행정평의회(SAC)는 「국민병역법(People's Military Service Law)」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⁴ 일반적으로 '징집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18세에서 35세까지의 남성과 18세에서 27세까지의 여성에게 의무적인 병역을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당초 국가행정평의회(SAC)는 4월부터 매달 5,000명을 징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⁵ 그러나 반대 세력인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의 자료가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2024년 연초 기준으로 2만 2,000명 이상이 이미 징집된 것으로 나타났다.⁶ 이러한 발표는 징집을 피하려는 청년들 사이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촉발했다. 국가행정평의회(SAC)가 여전히 통제하거나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수의 원주민 청년들이 소수민족 무장단체(EAOs)가 통제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인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로 이주했다.⁷

비정부기구인 몬란드인권재단(Human Rights Foundation of Monland, HURFOM)의 보고서에 따르면, 몬주와 카렌주, 타난타리 지역에서의 징집 시행은 원주민 공동체에 다양한 불안정 요인을 초래했다. 노동력 손실로 농업과 같은 중요한 사회경제적 기반이 약화되었으며, 이는 식량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청년들이 도피하거나 강제로 끌려가면서 전통적인 사회적·정치적 구조가 훼손되었고, 공동체 지도자들의 권위가 약화되었으며, 공동체의 자치 역량이 축소되었다고 전해졌다.⁸

강제 징집은 국가행정평의회(SAC)만의 정책이 아니며, 소수민족 무장단체(EAOs)에서도 자행되고 있다. 꼬강족(Kokang) 무장단체인 미얀마 민주동맹군(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 MNDAA)은 국내 실향민(IDP) 캠프에서 남성을 강제 징집하고, 대다수가 원주민인 지역 공동체에 인력 할당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⁹ 또 다른 소수민족 무장단체인 샨주 회복위원회(Restoration Council of Shan State, RCSS)는 징집을 회피하는 구성원이 있는 가족의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⁰ 한편 빨레뜨와 지구(Paletwa township)에서는 아라칸연합/아라칸군(United League of Arakan/Arakan Army, ULA/AA)의 강제 징집으로 인해 친(Chin)족 원주민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어났다.¹¹

벼랑 끝에 선 원주민

미얀마 내전이 4년에 가까워지면서 원주민 공동체는 계속해서 심각한 인도적 피해를 겪고 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내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 수는 35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¹²

이 수치의 상당 부분은 전투가 격렬하고 외부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 즉 원주민 거주 비율이 높은 미얀마 북동부, 북서부, 남동부, 서부의 소수민족 주(States)에 집중되어 있다.¹³ 일례로 유엔개발계획(UNDP)은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심각한 기근 위험이 임박했다고 예측하며, 2025년에는 200만 명 이상이 아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디지털 권리 단체인 액세스 나우(Access Now)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으로 최소 80개 지구와 미얀마 14개 주 및 지역 중 13곳에서 인터넷 차단과 유선 전화 차단이 지속되고 있었다.¹⁵ 이러한 통신 차단 조치는 교전 지역 내 공동체를 고립시키기 위한 국가행정평의회(SAC)의 군사 전술 중 하나로, 이동 및 무역 봉쇄와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고립된 지역의 원주민들은 군의 이동, 전투 격화, 공습 예고, 분쟁 지역 내 강제 이주 위험 대처 방안 등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온라인 교육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인도주의 활동가, 언론인, 연구자들은 인도적 지원, 인권 침해 감시, 미얀마 상황 보도 등의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토 획득, 상실, 그리고 주도권 경쟁

2024년 초, ‘1027 작전’이 지속되는 가운데(『세계 원주민 현황 2023』 참조), 여러 소수민족 주에서 국가행정평의회(SAC) 소속 전초 기지와 지역 사령부가 잇달아 함락되었다. 이에 따라 소수민족 무장단체(EAOs)는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행정평의회(SAC)가 장악했던 광활한 지역에서 통제력을 공고히 했다. 미얀마특별자문위원회(SAC-M)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행정평의회(SAC)는 국토의 86%, 인구의 67%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인 통제권’을 상실했다.¹⁶ 이는 국가행정평의회(SAC)의 군사력과 미얀마 대다수 지역에 대한 통치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 공백 속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소수민족 무장단체 간의 영토권 분쟁이 갈수록 가시화되고 있다.

카친독립군(KIA)은 미얀마 북부에서 중국 국경 인근 카친주 제1특별지역의 희토류 광산 통제권을 확보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¹⁷ KIA는 이것이 카친 원주민 공동체가 단합할 기회임을 강조하며, 경제·사회적 복지를 보장하고 지역 개발과 인도주의 원칙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¹⁸ 그러나 산주 북부에서는 해방 지역 내 공공 서비스 제공권을 두고 KIA와 타양민족해방군(TNLA) 간의 경쟁이 시작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예컨대 카친족과 타양족이 섞여 사는 꾸까이(Kutkai) 지구 주민들은 두 무장단체가 교육 부문에서 버마족 국수주의(chauvinism)와 유사한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타 집단 학생들을 배제한 채 자민족(카친 또는 타양)의 역사와 언어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¹⁹

미얀마 서부에서는, 친(Chin)족 공동체 구성원들이 빨레뜨와(Paletwa) 지구에 설립될 아라칸연합/아라칸군(United League of Arakan/Arakan Army, ULA/AA) 행정부에 대해 유사한 우려를 제기했다. 1월, '아라칸의 민족해방, 그리고 아라칸 주권을 아라칸 사람들에게 되돌리는 것'²⁰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아라칸연합/아라칸군은, 지구 내 모든 군사 기반 시설에서 국가행정평의회(SAC)를 축출한 후, 친(Chin)주의 빨레뜨와 지구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²¹ 친(Chin)족의 하위 집단이자, 지구 내에서 다수 민족 집단인 쿠미(Kumi)족은 아라칸연합/아라칸군(ULA/AA)의 자민족 중심적 통치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는 학교 내 아라칸어 교육 강요²²를 비롯해, 쿠미족을 표적으로 한 강제 노동 및 징집과 같은 차별 행위가 포함된다.

공습, 포격, 지뢰

국가행정평의회(SAC)가 계속해서 영토를 상실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2024년에는 국가행정평의회(SAC)의 공습이 극적으로 증가했다. 연말 보고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769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지난 3년 치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²³ 국가행정평의회(SAC)가 수행한 공습의 상당 부분은 원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포함한 소수민족 주에서 발생했다. 예를 들어, 정치범지원협회(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AAPP)에 따르면, 라카인주는 국가행정평의회(SAC) 공습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았으며, 10월까지 159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²⁴

공습의 상당 부분은 학교, 교회, 의료 시설 등 비군사적 목표물을 타격했다. 예를 들어 친주에서만 2024년에 104건의 공습이 기록되어 학교 20곳, 교회 6곳, 의료 시설 4곳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다. 이로 인해 민간인 58명이 사망하고 9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러한 공습은 교전이 벌어지지 않던 곳에서도 빈번히 발생했다.²⁵ 그 결과 실항민들은 국가행정평의회(SAC)의 통제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돌아가 삶을 재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²⁶

지뢰와 기타 불발탄(unexploded ordnance, UXO)의 지속적인 위협으로 인해, 원주민 공동체는 계속되는 분쟁 속에서 삶과 생계를 영위하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국제지뢰금지운동(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ICBL)의 2024년 말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는 처음으로 대인 지뢰로 인한 사상자 수 세계 1위 국가로 기록되었으며, 보고서 작성 기간 동안 1,003명의 피해자가 있었다고 기록되었다.²⁷ 일례로 친주 원주민들은 농업, 어업, 임산물 채취 등 생계 활동 중에 지뢰를 밟을 위험에 처해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아이들이 불발탄을 가지고 놀다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국가행정평의회(SAC), 선거 계획 강행

전례 없는 영토 상실과 뼈격거리는 행정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정평의회(SAC)는 2025년 선거 실시 계획을 고수했으며,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구 조사에 착수했다. 잠정적인 결과에 따르면, 미얀마 인구는 약 5,130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10년 전 집계된 5,150만 명보다 약간 낮은 수치다.²⁸ 이 수치는 10월에 실시된 인구조사가 안보 문제로 인해 미얀마를 구성하는 330개 행정 구역(townships)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역에서만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중국이 처음으로 국가행정평의회(SAC) 지지 의사를 표명한 뒤 추진되었다. 중국 왕이(Wang Yi) 외교부장은 인구 조사 기술 지원을 약속하고²⁹, 수세에 물린 국가행정평의회(SAC) 지도자를 처음으로 베이징 회의에 초청하는 한편, 산주 무장단체(EAOs)가 전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³⁰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비록 미온적일지라도 수세에 물린 국가행정평의회(SAC) 정권에 생명줄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중국은 자국 투자 자산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행정평의회(SAC)와 협력하여 보안 업체를 설립하는 협력에도 착수했다.^{31, 32}

한편, 유엔 미얀마 특사 줄리 비숍(Julie Bishop)은 10월 유엔 총회 첫 연설에서, 혁명에 참여한 이들이 이른바 '제로섬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이전에 네피도에서 국가행정평의회(SAC) 지도자를 만난 바 있으나, 국가행정평의회(SAC)의 광범위한 잔혹 행위는 언급하지 않았다.³³ 특사의 이러한 발언은 기만적인 선거 절차에 거짓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는 비판을 샀다. 또한 유엔 특사들이 역대 미얀마 군사 정권의 잔혹 범죄를 사실상 방조하여 기세를 북돋우는 한편,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미얀마 국민의 집단적 노력을 저해해 온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³⁴

공개 서한에서 276개의 미얀마 및 유럽 기반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선거가 자유롭거나 공정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의지를 대표하지도 않을 것이고, 미얀마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민족 및 종교 공동체 간 진정한 권력 분담에 기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³⁵

면책 거품이 꺼질 것인가?

11월,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석 검사는 로힝야족 강제추방과 관련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국가행정평의회(SAC) 지도자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공식 요청했다.³⁶ 표면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미얀마가 로마 규정(Rome Statute) 가입국이 아니므로 미얀마 내 국제 범죄를 기소할 관할권이 없다. 그러나 검찰 측은 강제 추방 범죄의 일부가 가입국인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했으므로 수사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 3명이 검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예상대로 국가행정평의회(SAC)는 즉각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부정했다.³⁷

판결은 2017년 로힝야족 추방 사건에 국한된 것이지만, 만약 안전보장이사회가 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국가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른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안보리 내 거부권 행사로 인해 실현 가능성은 낮다.

미얀마 인권 상황 특별보고관은 각국 정부에 미얀마 관련 사건에 대한 국내 관할 법원의 보편적 관할권 행사를 지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들에는 로마 규정 제14조에 따라 미얀마 관련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에게 회부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³⁸

주석 및 참고문헌

1. "Coalition of Indigenous Peoples in Myanmar/Burma." Joint Submission to the UN Universal Periodic Review, March 2015. https://www.chinhumanrights.org/wp-content/uploads/2015/08/Coalition-of-IPs-in-Myanmar_UPR.pdf
2. Burma Citizenship Law 1982, Pyithu Hluttaw Law No 4 of 1982. Section 3.
3. "Myanmar's Constitution of 2008 with Amendments through 2015." Comparative Constitute Project. https://www.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Myanmar_2015.pdf?lang=en
4. ISP: On Point "PANDEMONIUM: The Conscription Law and Five Negative Potential Consequences," 16 February 2024. <https://ispmyanmar.com/op-20/>
5. UN NEWS, "Myanmar: Mandatory conscription shows junta's 'desperation', rights expert says," 21 February 2024. <https://news.un.org/en/story/2024/02/1146802>
6. National Unity Government, Ministry of Human Rights, "Unlawful Conscription Watch," accessed 2 January 2024. https://mohr.nugmyanmar.org/unlawful_conscription_watch/?fbclid=IwY2xjawHjL05leHRuA2FibQIxMAABHaGkhvdhupfPK1fBZU0nnzG2IXtzcNoCUT7NDwXfFFaTNE2s-xp5NW4eQ_aem_ROWnfHgC-wRHPPKxam3q8A
7. Frontier Myanmar, "Communities Strive to Shield Youth From Conscription," 22 April 2024. <https://www.frontiermyanmar.net/en/communities-strive-to-shield-youth-from-conscription/>
8. Ibid
9. The Diplomat, "Myanmar Ethnic Armed Groups Draw Allegations of Forced Recruitment," 3 January 2024. <https://thediplomat.com/2024/01/myanmar-ethnic-armed-groups-draw-allegations-of-forced-recruitment/>
10. DVB, "Chin National Front calls to resist conscription law; Thai PM warns Burma nationals to enter legally," 21 February 2024. <https://english.dvb.no/chin-national-front-calls-to-resist-conscription-law-thai-pm-warns-burma-nationals-to-enter-legally/>
11. Chin Human Rights Organization: Unpublished Data.
12. UN-OCHA, "Myanmar Humanitarian Update No. 43 | Reflecting on 2024 and preparing for 2025," 5 January 2025. <https://www.unocha.org/publications/report/myanmar/myanmar-humanitarian-update-no-43-reflecting-2024-and-preparing-2025>
13. Ibid
14. UNDP, "Rakhine: A Famine in the Making," 5 November 2024. <https://www.undp.org/asia-pacific/publications/rakhine-a-famine-in-the-making>
15. The Irrawaddy, "Myanmar Junta Cuts Communications in Around 80 Myanmar's Townships: Report," 14 March 2024. <https://www.irrawaddy.com/news/burma/myanmar-junta-cuts-communications-in-around-80-myanmars-townships-report.html>

16. SAC-M, "Briefing Paper: Effective Control in Myanmar 2024 Update," 30 May 2024.
<https://specialadvisorycouncil.org/wp-content/uploads/2024/05/SAC-M-Effective-Control-in-Myanmar-2024-Update-ENGLISH.pdf>
17. The Irrawaddy, "KIA Seizes Chinese Border Town From Myanmar Junta," 21 November 2024.
<https://www.irrawaddy.com/news/war-against-the-junta/kia-seizes-chinese-border-town-from-myanmar-junta.html>
18. The Irrawaddy, "KIA Abolishes Kachin State's Special Region-1 on China-Myanmar Border," 29 November 2024. <https://www.irrawaddy.com/news/burma/kia-abolishes-kachin-states-special-region-1-on-china-myanmar-border.html>
19. Frontier Magazine, "Blood brothers? Tensions test an old oath in northern Shan," 26 June 2024.
<https://www.frontiermyanmar.net/en/blood-brothers-tensions-test-an-old-oath-in-northern-shan/>
20. The Irrawaddy, "AA Seizes Rakhine's Taungup, but Battle Continues," 29 November 2024.
<https://www.irrawaddy.com/news/war-against-the-junta/aa-seizes-rakhines-taungup-but-battle-continues.html>
21. The Stimson Centre, "Understanding the Arakan Army," 21 April 2023. <https://www.stimson.org/2023/understanding-the-arakan-army/>
22. CNI Myanmar, "AA implements Arakan education system in Paletwa," 2 December 2024.
<https://cnimyanmar.com/index.php/english-edition/25971-aa-implements-arakan-education-system-in-paletwa>
23. RFA, "Air, artillery strikes set grim benchmark for civilian casualties in Myanmar in 2024," 31 December 2024. <https://www.rfa.org/english/myanmar/2024/12/31/myanmar-year-of-airstrikes/>
24. The Diplomat, "Arakan Army Commander-in-Chief Twan Mrat Naing on the Future of Rakhine State," 6 September 2024. <https://thediplomat.com/2024/09/arakan-army-commander-in-chief-twan-mrat-naing-on-the-future-of-rakhine-state/>
25. Data provided by the Chin Human Rights Organization (CHRO).
26. CHRO: Documentary, "Rebuilding Lives," November 2024. <https://www.youtube.com/watch?v=zdkPfcClpFo&t=4s>
27.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Landmine Monitor: 2024," 20 November 2024.
<https://backend.icblcmc.org/assets/reports/Landmine-Monitors/LMM2024/Downloads/Landmine-Monitor-2024-Final-Embargoed.pdf>
28. Associated Press, "Myanmar's military government begins a census seen as a way to gather information about opponents," 2 October 2024. <https://apnews.com/article/myanmar-census-civil-war-military-resistance-eafba6e479c59fb926d31a10d4b663ca>
29. Reuters, "Myanmar junta announces census for promised 2025 election," 2 September 2024.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myanmar-junta-announces-census-promised-2025-election-2024-09-02/>
30. IISS Myanmar Conflict Map, "China pressures Myanmar opposition groups to halt latest offensive," July 2024. <https://myanmar.iiss.org/updates/2024-07>
31. VOA, "China's joint security proposal sparks controversy in Myanmar," 20 November 2024.
<https://www.voanews.com/a/china-s-joint-security-proposal-sparks-controversy-in-myanmar/7870325.html>
32. Mizzima, Myanmar military forms committee to establish joint security venture with China," 15 November 2024. <https://eng.mizzima.com/2024/11/15/16285>
33. UN Meetings Coverage and Press Releases, "Briefers Urge Third Committee to Address Unmet Needs of People, Election Concerns in Conflict-Torn Myanmar, Act on Neglected Crisis," 29 October 2024.
<https://press.un.org/en/2024/gashc4421.doc.htm>

34. Progressive Voice, "Special Envoy's Zero Regard for Human Rights," 9 November 2024.
<https://progressivevoicemyanmar.org/2024/11/09/special-envoys-zero-regard-for-human-right/>
35. 276 Myanmar and Europe-Bas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ppeal for European Parliament Action on Myanmar: Denounce the Junta's Sham Election, Support Democracy, and Pursue Justice for Atrocity Crimes," 3 December 2024. <https://progressivevoicemyanmar.org/2024/12/03/open-letter-by-myanmar-and-europe-based-civil-society-organizations-to-denounce-the-juntas-sham-election-support-democracy-and-pursue-justice-for-atrocities/>
36. BBC News, "ICC prosecutor seeks arrest warrant for Myanmar leader," 27 November 2024.
<https://www.bbc.com/news/articles/cx2nqg05pz9o>
37. The Nation, "SAC rejects ICC statements, cites Myanmar's non-membership," 28 November 2024.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asean/40043696>
38. UN Special Procedures: Press Release, "Seize momentum for justice created by application for ICC arrest warrant against Myanmar junta leader: UN expert," 16 December 2024.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4/12/seize-momentum-justice-created-application-icc-arrest-warrant-against>

이 보고서의 저자와 발행인은 미얀마/버마(Burma) 명칭 논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미얀마로 일관되게 사용했다.

이 보고서는 **친 인권기구**(Chin Human Rights Organization, CHRO)가 작성했다. 친 인권기구는 원주민 친족과 미얀마의 다른 민족, 원주민 공동체를 대신하여 모니터링, 연구, 기록, 교육, 옹호 활동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활동한다.

